

# 인천 119 스토리

2021년  
8월호

01

인천소방이야기  
머리카락 기부로  
슬기로운 나눔생활에  
동참하다

02

인천소방이야기  
나는 계속한다,  
만족할 때까지

03

인천소방이야기  
천 년의 숲길

04

인천소방 소식  
소방본부, 스킨존  
지상식소화전 외관 디자인  
개선사업 추진  
소방본부, 임산부 전담  
119구급서비스 운영

05

이벤트  
제4회 대한민국  
소방과학·기술 경연대회

06

시민의 편지



인천소방본부

# 목차 CONTENTS

## 01

### 인천소방이야기

머리카락 기부로 슬기로운 나눔 생활에 동참하다

## 02

### 인천소방이야기

나는 계속한다, 만족할 때까지

## 03

### 인천소방이야기

천 년의 숲길

## 04

### 인천소방 소식

소방본부, 스킨존 지상식소화전 외관 디자인 개선사업 추진  
소방본부, 임산부 전담 119구급서비스 운영

## 05

### 이벤트

제4회 대한민국 소방과학·기술 경연대회

## 06

### 시민의 편지



## 머리카락 기부로 슬기로운 나눔 생활에 동참하다

글 계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최민경



소방공무원 시험 합격 후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 머리카락을 기르기 시작했고 3년 동안 소중히 기른 모발을 최근 소아암 환자를 위해 ‘어머나 운동본부’에 기부했다.

‘어머나 운동’이란 ‘어린 암 환자들을 위한 머리카락 나눔 운동’의 줄임말이다. 일반인들로부터 25cm 이상의 머리카락을 기부받아 특수가발을 제작, 이를 항암치료 중 탈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기부하여 심리적 치유를 돕는 운동이다.

마침 같은 팀의 염승기 반장도 어머니 운동에 관심을 가져 딸 염예린 양도 슬기로운 나눔 생활에 동참하게 됐다. 나와 염예린 양은 소아암 환자들에게 건강한 모발을 선물하고 싶어 3년 동안 파마와 염색 등의 시술을 받지 않고 꾸준히 모발을 관리해왔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머리카락을 자르고 싶었던 적도 많았지만, 기부하는 순간 참고 기르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 오래 기다린 만큼 보람이 컸다. 내 노력이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소아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어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아울러 염색과 파마를 한 머리카락도 모질에 따라 기부가 가능하다고 하니 많은 시민들이 ‘어머나 운동’에 관심을 갖고 슬기로운 나눔 생활에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 나는 계속한다, 만족할 때까지

글 공단소방서 소래119안전센터 소방사 신하림



2021년 7월 3일 밤 11시 30분경 지령서가 내려왔다. 시흥 시화공단 화재 지원 출동이었다. 나는 2021년 4월 26일 소래119안전센터로 발령받았는데, 시화공단 화재 지원 출동은 발령 후 화재 출동다운 첫 출동이었다. ‘하필 대응 2단계 화재가 첫 출동이라니...’

현장에 도착해 지휘소의 지시에 따라 현장 한쪽 면에 차량을 부서했다. 팀장님과 함께 공기호흡기를 메고 면체를 착용한 채 불길이 보이는 컨테이너를 향했다. 나는 팀장님의 지시에 따라 수관을 끌었다. 수관은 생각보다 무거웠고 호흡이 알아지는 것을 느꼈다. 한동안 화염을 향해 팀장님과 번갈아 방수하여 불길 진화가 완료될 즈음이었다. 공기호흡기 용기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공기가 없다는 신호였다. 나가야 한다고 알린 후 팀장님 안색을 살폈는데 지친기색 하나 없으셨다. ‘체력이 대단하시네... 터미네이터인가...’

우리는 공기호흡기 용기를 교체하기 위해 펌프차가 있는 곳으로 빠져나왔다. 면체를 벗는 순간 한가득 들이켠 공기가 그렇게 신선할 수가 없었다. ‘와, 평소





엔 물랐는데 내가 마시던 공기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그렇게 좀 쉬다 보니 어느새 팀장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시 현장에 들어가시려는 듯했다. 나는 빠르게 준비했다. 마지막 장갑까지 착용하고 앞을 보니 팀장님은 이미 준비를 다 마치고 기다리고 계셨다. ‘역시 베테랑... 참 빠르시다.’

같은 장소로 돌아가 다시 방수하려던 순간 철수하라는 무전이 왔다. 지원 나온 대원들은 이만 철수하라는 것이다. 현장 철수 속도 역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랐다. 나는 센터로 돌아와 동료들과 젖은 수관을 말려놓고 언제든 다음 출동이 가능하도록 물 보급을 완료했다.

이번 현장 경험을 통해 내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 관내의 화재가 아니어서 일찍 철수했지만 만약 관내의 화재였다면? 이번은 한 번만 들어갔다 나왔지만 밤새 진압을 해야 한다면?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날 이후 매일 공기호흡기와 면체를 쓰고 훈련을 하고 있다. 모든장비를 착용하고 추가로 공기호흡기 용기를 한 손에 들거나 양손에 든 채 뛰기도 하고 왕복오래달리기 음원을 틀고 뛰기도 한다.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소방 PT를 두세 번 하는 날도 있다.

훈련의 첫 번째 목적은 면체에 익숙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체력을 키우는 것이다. 실제 화재 출동은 매일같이 발생하진 않는다. 그러다 보니 나태해질 수 있는데, 이 나태함이 지속되면 첫 출동과 같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는 나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동료에게도 큰 부담과 위험이 된다.

요즘같이 덥고 습한 날씨에 이러한 훈련을 계속한다는 건 쉽지 않다. 땀도 많이 나고 힘들지만, 이런저런 것 다 따지며 훈련에 소홀해지면 현장에서 내 몸과 시민을 보호하기 힘들다. 다른 이들이 보면 ‘사사고생한다’라고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소방공무원의 모습에 비해 지금의 나는 한참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계속할 생각이다. 누가 어떻게 보든, 현장에서 스스로 만족스러운 체력을 확인할 때까지, 계속할 것이다. 🏃‍♂️



## 천 년의 숲길

글 공단소방서 동춘119안전센터 소방장 이장현



더 더워지기 전에 맨땅을 밟고 싶었다. 한여름 무더위를 이겨낼 힘을 충전하고 싶었다. 어디가 좋을까 검색을 하다가 월정사 앞에 있다는 천 년 된 전나무 숲길이 마음을 이끌었다. ‘천 년을 버틴 숲’이라는 문구와 아름답게 펼쳐진 전나무 숲길 사진들 때문이었다. 천 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깊은 위로를 줄 것 같았다.

초등학생이 된 지 2달 밖에 안 된 딸아이는 학교도 학원도 안 가고 놀러 가는 게 좋은지 싱글벙글하다. 3시간가량을 달려 월정사 주차장에 도착할 때 즈음부터 후드득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오늘 비가 온다고 했나, 일기예보를 검색하던 중 소나기는 한바탕 퍼붓다 거짓말처럼 그쳤다. 여우가 시집가는 날이었나.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했지만 오히려 비가 오니 숲 내음은 짙어졌고 차가워진 산속 공기는 가슴속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신라 선덕여왕 때 지어졌다는 천년고찰 월정사는 오래된 수목화를 보듯 산사를 감싸 안은 산들과 은은하게 어우러졌다. 팔각구층석탑의 층수를 세어보며 나중에 국가책에서 보게 될 거라고 아이에게 말했더니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 통에 웃음이 새어 나왔다.

산사 입구에는 유기농 빵과 전통차를 파는 카페가 있었다. 시원한 마실 거리가 생각나 들어갔다. 쌍화차 한 잔, 새소리와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는 어떤 위로보다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월정사를 나와 1km 남짓의 전나무 숲길을 천천히 걸었다. 우리나라 3대 전나무 숲 중 하나라는 월정사 전나무 숲길은 천 년의 숲이라 그런지 너그럽고 신비로운 기운이 느껴졌다.

곧게 뻗은 전나무들은 얼마의 시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걸까. 이 길을 걷는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와 안식을 나누어 주었을까. 기둥에 나있는 수많은 상처와 부러진 가지가 가능할 수 없는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다. 전나무 옆으로 오대산의 맑은 물이 흐르고 우리의 추억 또한 이렇게 흘러가리라. 



## 소방본부, 스쿨존 지상식소화전 외관 디자인 시각화 개선사업 추진



소방본부가 지상식소화전의 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획일적인 외형과 노후로 인한 도색 벗겨짐 등으로 도시 미관과 어울리지 않고 부정적 인식이 강한 지상식소화전의 외관을 변화시켜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먼저 학익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에 있는 소화전 1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향후 인천시 주요 관광지 및 역사유적지 등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디자인 및 도색 작업을 맡은 인haled, 청운대 전문의용소방대 학생들은 소방 캐릭터인 ‘영웅이’를 소화전 몸체에 구현해 아이들이 친근함을 느끼도록 했다. 소화전의 새로운 외형에 아이들과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져 소화전 주변 쓰레기 투기나 주·정차 차량이 줄어든 것으로 기대된다. 도색작업에 참여한 학생은 “스쿨존 내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어린이들의 안전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화재예방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안전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소방본부, 임산부 전담 119구급서비스 시범 운영



소방본부에서는 지난 6월부터 저출산 시대에 출산율을 높이고자 임산부 전담 케어 구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032-870-3453으로 전화한 후 인적사항, 임신 관련 정보 등 기본사항을 등록하고 이용 가능한 날짜를 예약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임산부 전담 구급차에는 혹시 모를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여성대원이 배치되며, 응급분만 처치 세트가 비치되어 있어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시민들의 관심과 홍보로 많은 임산부들이 임산부 전담 119구급서비스에 신청하길 바란다. 



# 제4회 대한민국 소방과학·기술 경연대회

Fire Safety Specialist  
최고의 FS를 찾아라!



## 참가 신청 기간

2021. 07. 23.(금) ~ 2021. 8. 31.(화)

## 신청 접수 및 참가 방법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퀴즈 앱 '땡기지' 다운로드 후  
접수(개인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땡기지 앱을 통한 경  
연 참가)

## 대회 일정

▶ 모바일 퀴즈 예선

구분	예선			결선	비고
	1회차	2회차	3회차		
일시	9.2.(목), 14:00	9.11.(토), 14:00	9.17.(금), 10:00	추후공고	부문 통합경연 홈페이지·문자
통과자 발표	9.8.(수)	9.14.(화)	9.23.(목)		

▶ 모바일 화상 퀴즈 결선 : 10월 중 결선진출자 별도 공지

## 참가 부문 · 시상내역

구분	훈격	정부(4명)	민간(14명)				비고
			전문(8명)		일반(6명)		
			특급(4)	1~3급(4)	일반인(3)	학생(3)	
합계	총 1,110만원	210만원	210만원	210만원	110만원	110만원	경품 260만원
대상(3명)	행안부장관상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	-
최우수상(5명)	소방청장상	5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
우수상(10명)	안전원장상	60만원	60만원	60만원	60만원	60만원	-

## 시 민 의 편 지

이런 분이 계시니 아직은 견딜 만합니다

작성자: 이영배

소방관: 영종소방서 운서119안전센터 소방사 윤상재



저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고부터 줄곧 이곳, 영종도 하늘문화센터 백신119에서 쿿은일을 하고 있는 영종도민입니다. 백신 119 남자 소방 간호사님을 칭찬하고자 글을 씁니다. 정말 이런 분이 아직 있구나 싶습니다. 이분은 모든 사람에게 90도 인사는 기본이며 하루에도 수많은 접종에 피곤할 텐데도 일일이 당사자를 찾아서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혹 간식거리라도 나오면 모두에게 나누고, 주변 쓰레기를 줍거나 무언가 도움 일이 없을까 찾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먼저 인사하고 먼저 술선수범하는 이 사람, 감히 칭찬하고자 합니다. 그냥 보아도 선한 사람임이 느껴질 만큼 좋은 분이기에 저 또한 이 소방관을 만나면 살맛 나는 아름다운 세상이라 느끼며 기분이 좋습니다. 살면서 누군가의 선한 행동을 보고 이렇게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껴보는 것도 행복이겠지요. 이분을 진정한 천사로 추천합니다. 소방청장님, 한 번쯤 윤상재 님을 칭찬해주세요.

감동의 눈물을 선사해주신 무의지역대 대원님들~

작성자: 손의순

소방관: 영종소방서 용유119안전센터 소방교 최원영, 소방사 김훈철



무의도에 트레킹을 갔다가 발을 헛디더 정강이뼈가 부러졌습니다. 꿈쩍도 못하고 있었는데 구급차로 재빠르게 이송되어 수술을 받고 엇그제 퇴원했습니다. 생전 처음 구급차를 탔는데 대원분들의 친절함 대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근래 중 최고로 더운 날, 산에서 구급차까지 두 분이 번갈아 저를 업고 내려가는데 어찌나 미안하고 고마웠는지요. 온몸이 땀으로 범벅되었지만, 괜찮다며 오히려 저를 걱정하고 위로해주셨습니다. 세상에... 짜증 한 번 안 내고 환한 미소로 끝까지 업어주시는 모습에 감동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믿음직스럽고 요즘 보기 드문 젊은이들의 기상과 책임감! 무의지역대 김훈철, 최원영 구급대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두 분 덕에 사회를 바라보는 눈높이가 한 층 더 올라갔어요. 두 분처럼 희생정신 가득한 분들이 대한민국 구급대원임에 너무나 안심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그 씩씩함과 환한 미소를 앞으로도 계속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넘 멋졌어요~ 우리 사회의 빛이 될 두 분~! 저도 재할 잘 받아서 씩씩하게 일어나겠습니다!



## 인천소방본부

발행처 인천소방본부(예방안전과) 발행일 2021년 8월 23일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90 전화 032)870-3075

홈페이지 <https://www.incheon.go.kr/119> 기획편집 정상기, 양경철, 김선태, 유지연, 박형서, 김세엽

디자인·기획·편집 소나기크리에이티브 주식회사 070-7092-0999 <https://www.s-creative.co.kr>